

전주 곳곳 생활체육시설 확충

시, 평화동 국민체육센터 9월완공·혁신도시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

전주시 평화동 전주 국민체육센터가 오는 9월에 완공된다. 또, 전북혁신도시에는 다목적체육관과 수영장이 건립된다.

전주시는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평화동 국립체육센터 건립공사, 혁신도시 다목적체육관·수영장 건립사업 등 다양한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평화동 국민체육센터는 총 116억원이 투입돼 1만1779㎡ 부지에 다목적

구장(농구장, 족구장)과 체육관, 사무실, 체력측정실,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실, 주민문화공간 등이 갖추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전북 혁신도시에 다목적체육관·수영장도 건립한다.

내년부터 오는 2021년 말까지 총 사업비 113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3900㎡ 규모로 지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는 생활체육광장과 덕진·야중·완산체련공원 등 생활체육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도 전개한

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시민들의 생활체육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생활권 주변에 다양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노후화된 시설물을 보수·보강해나갈 것"이라며,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친화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 독립운동가 58일 조명

전주시는 4일부터 8일까지 시청 로비에서 '중남문에서 우편국까지 100년의 행진'을 주제로 지난 3월 진행한 '3.1운동 및 전주 기록물 수집공모전' 입상작 200여점을 전시하는 전주 기록물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12면)

전주 특례시 지정 시민 열망 불 지핀다

시, 8일 지정 세미나 개최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위해 대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힘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오는 8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김광수·정운천·정동영 국회의원, 학계, 언론 등을 비롯한 관계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전주 특례시 지정 세미나'를 갖고 토론의 장을 펼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종합토론에 앞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승수 시장은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 거점 조성의 필요성'을 주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해소와 지역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 역설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광역단체 위주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국가예산과 기관유치 등에서 광역시 있는 지역과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음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도시 특례의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대도시 특례제도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특례시의 지정방향을 소개하고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안성호 충북대 교수의 사회로 강인호 조선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한광 전주MBC 국장, 조승현 전북대학교 교수와 한성천 전북도민일보 국장 등이 참여해 전주 특례시 지정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1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를 갖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낙후지역의 격차해소를 위해 전주 특례시 지정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으며, 25일에는 청주시, 성남시 등과 함께 국회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를 가졌다.

또한, 완산·덕진구민을 대상으로 '2019 덕진구 지혜의 원탁'을 갖고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전주시의회 역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며 전북 시·군의회 협의회에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전북도의회 의원들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확대를 촉구했다. 나아가, 전북도내 14개 시장·군수들은 광역시 지정이 없어 소외됐던 전북 발전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뜻을 모았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와 전북의 미래를 바꾸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의 특례시 지정은 필 요하다"면서 "시민의 열망을 모아 전주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 SPOEX 참석 현장의정활동 벌여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형배 의원)가 전주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9 서울국제레저스포츠산업전(SPOEX)'에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는 전국드론축구대회를 참관하고 레저산업 전시관과 스포츠 창업 특별관 등을 방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등 스포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현장 활동을 펼쳤다.

문화경제위원회 박형배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이번 SPOEX는 전 세계 스포츠산업의 트렌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이번 체험을 발판 삼아 전주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3.1절 연휴임에도 불



2030 전주문화비전 수립 원탁회의

'2030 전주문화비전' 수립을 위한 첫 시민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구하고 전주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열정적으로 현장활동에 나섰다"며, "전주에서도 스포츠

전주시는 4일 삼천문화의 집에서 시민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련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 374건 선정

전북문화관광재단, 단체·개인예술가 등 명단 발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지난달 28일 '2019년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서 선정된 단체 및 개인예술가 374건의 명단을 발표했다.

재단은 문학, 미술, 공예, 사진, 서예, 음악, 무용, 연극, 전통, 다원분야 등 10개 분야에서 총 87건을 접수해 15억 2,900만원의 공모금액에 대한 심사를 했다고 밝혔다.

창작 247·기반구축 96 교류 6·신진예술가 25건

이번 지원에서 재단은 예술인의 신청예산이 나눠주기 식 배분에 의해 삭감되지 않도록 '문화예술 창작 지원' 분야의 경우 장르별로 정액지 원하기로 했다.

또한,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신진예술가 및 국제교류사업에는 PPT 심사를 도입하고 모든 심사 과정을 공개심사로 진행했다.

그 결과, 문화예술창작 분야에 247건, 문화예술기반구축 분야에 96건, 문화예술교류 분야에 6건, 신진 예술가 25건이 선정돼 약2.9%의 선정률을 기록했다.

특히, 국제교류 활동지원에 태국

(넬마루 무용단, 1,000만원), 두바이(두댄스 무용단, 1,500만원), 중국(한국연극협회 전북지회, 2,000만원), 불가리아(문화포럼 나니레, 2,000만원), 인도네시아(전주지점별 이보존회, 2,000만원), 말레이시아(극단 까치꽃, 1,500만원)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총 1억원을 지원한다.

신진예술가지원은 분야별 40세 미만의 예술인 25명을 대상으로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700만원씩 총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결정했다.

한편, 심사위원회는 △문학분야 이희희, 박귀덕, 김유석, 김종광(도외), 강지영(도외), △미술분야 엄혁용, 진창윤, 현철주, 송필용(도외), 조인호, 공예분야 송미령, 강정 이, 김종필(도외), △사진분야 석병열, 성창호, 최차열(도외), 서예분야 강수호, 유지인, 고영삼, 최재일, 김국상(도외), 음악분야 오정선, 강양 이, 강진학, 김영연(도외), 주종빈(도외), △무용분야 박비애, 김지영, 김수현(도외), △연극분야 류경호, 이주현, 이정만(도외), 전통분야 김연, 정재훈, 이재정, 정선옥(도외), △다원분야 이태호, 김광희, 황풍년(도외), 문화예술교류분야 박종진, 조석창, 황치준(도외), △신진 예술가분야 조성원, 홍석찬, 주종빈(도외), 박리디아(도외)가 참여했다.

/송효철 기자

강제추행 혐의 재판 중에도 치마 속 몰카 촬영 20대 실형

재판부, "자숙하지 않고 범행 저질러... 변명 일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모(28)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13일 오후 5시 56분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모(26·여)씨 등 여성 2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당시 뒷부분이 풀려 있는 가방에 휴대전화 렌즈가 위를 향하도록 올려놓고 치마를 입은 여성들에게 접근해 몰카 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또, 몰카 촬영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A씨는 "휴대전화 촬영 기능을 켜놓지 않았다. 실재로 범행을 실행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하고 조작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증범죄로 2010년 소년 보호처분을 받았고, 2016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에도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몰카·아동 음란물 7만여건 유포

광고주의 행진 30대 구속

인터넷에 아동음란물과 몰래카메라 등의 불법 촬영물 무단건을 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광고비를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 송치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A모(35)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물 7만여 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피자금을 모두 사용해 해외생활이 어려워지자 국내로 은밀히 입국하려다 붙잡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음란 사이트 외에도 100여명의 판돈이 오가는 온라인 카지노 등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광고사(법명 V.P.N)를 이용해 서버에 우회 접속하는 등의 수법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을 통해 음란사이트 자료를 복원·분석한 뒤 A씨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필리핀 마닐라의 한 사무실을 특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물 7만여 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피자금을 모두 사용해 해외생활이 어려워지자 국내로 은밀히 입국하려다 붙잡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음란 사이트 외에도 100여명의 판돈이 오가는 온라인 카지노 등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강석훈 기자

대학생들 고금리 대출피해 예방 돕는다

시, 비전대 입학식서 교육

전주시가 경제관념이 부족한 대학 새내기들의 고금리 대출 피해예방을 돕고 나섰다.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는 지난달 28일 전주비전대학교 입학식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불법 대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에서 실제 채무조정을 통해 면책 받은 대학생의 고금리 사용 피해사례를 주제로,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 △3대 대출사기 유형 △대학생활을 알차게 만드는 똑똑한 금융생활 등에 대한 교육으로 이뤄졌다.

시는 이번 교육에 이어 4일과 5일에는 전주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요청을 할 예정이다.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에는 현재 3명의 전문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상담사들은 △가계재무관리상담(가계 수입과 지출균형, 교육·주택·창업 등 목적자금 관리 등) △채무자 맞춤형 채무조정상담(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연계, 서민금융지원안내) △신민 금융복지 교육(재무관리, 올바른 소비습관 등) △법원신청서류 대행(공적구제제도 법원서류 작성 및 접수 대행) △불법사금융 예방상담(대부업체 거래 시 유의사항)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성원 전주시 사회경제지원단장은 "대학생들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대출에 노출돼 있고, 학비나 취업 준비 자금 마련으로 불법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요즘 이번 교육은 피해를 예방하는 금융교육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대학생들이 몰래 불법 대출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 차원의 금융교육과 콘텐츠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서 택시에 두고 간

지갑·현금 훔친 30대 검거

택시에 두고 간 지갑과 현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4일 절도 혐의로 A모(37)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 59분경 완산구 용머리로 한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34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와 함께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택시 내 블랙박스 및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순간 욕심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강석훈 기자

'창문 열린 곳 노려'

상가털이 30대 입건

창문이 잠기지 않은 상가를 뚫개해 금품을 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모(35)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3시 40분경 전주 덕진구 한 음식점에 침입해 카운터에 보관된 현금 30만원을 훔치는 등 총 4회에 걸쳐 현금 1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창문이 잠기지 않은 상가를 대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와 함께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강석훈 기자